



저자의 말

2021학년도 저자의 말

신입 저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오르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따라와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 2021학년도에도 열심히하는 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작년에 느꼈던 여러 부족한 부분을 모두 개선하고,

제 모든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나은 교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이 시리즈(구 ㄹㅇㅍㅌ)입니다. 매년 새로운 EBS소재로 개정되는 교재입니다.
올해는 EBS의 모든 지문을 넣었으며, 폭넓고 깊은 배경지식을 위한 여러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배이 시리즈의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EBS연계 소재를 접하며, 수능에서의 연계 문제 대비
- (2) 다양한 지식을 통해, 수능에서 문제 풀이 속도 향상

수능 국어의 비문학 지문은 글만 읽으면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한 안에 풀어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읽기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덜 읽어도 되게 만들어서 가거나.
현재까지의 수능 국어 시장은 모두 읽기 속도에 관한 '독해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압축적인 정보량을 가진 지문이 출제되면서, 시간부족이 고득점을 향한 여러 학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ㄹㅇㅍㅌ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출으로 공부하는 기본적인 배경지식은 기마켓으로, EBS 연계 배경지식은 이배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경지식을 공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ㄹㅇㅍㅌ 시리즈로 접해보세요.
ㄹㅇㅍㅌ 시리즈의 시그니처 라인업, 이배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서

- 1부와 2부는 이배이-수능특강 두 권 모두에서 다뤄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1부. 교과서에서 말하는 독서 읽는 법

2부. 실전 학습파트 분석

지문 번호	수록 페이지	분야	페이지
5-1	264p	과학	12p
5-2	268p	융합(인문+예술)	18p
5-3	272p	사회	24p
5-4	277p	사회	30p
5-5	281p	융합(인문+과학)	36p
5-6	285p	과학	42p

3부. 교과서 독해 연습

지문 번호	수록 페이지	분야	페이지
0-2	12p	기술	48p
0-7	32p	과학	54p

4부. 과학기술 지문 분석

지문 번호	수득 페이지	분야	페이지
3-1	154	과학	62p
3-2	157	과학	68p
3-3	161	과학	72p
3-4	167	과학	76p
3-5	171	과학	82p
3-6	174	과학	90p
3-7	178	과학	98p
3-8	182	기술	104p
3-9	185	과학	108p
3-10	188	기술	114p
3-11	191	기술	120p
3-12	196	기술	128p
3-13	200	기술	132p
3-14	203	기술	140p

5부. 융합 지문 분석

지문 번호	수득 페이지	분야	페이지
4-1	209	융합(인문+기술)	148p
4-2	214	융합(과학+예술)	154p
4-3	218	융합(인문+기술)	160p
4-4	222	융합(인문+과학)	166p
4-5	226	융합(사회+기술)	172p
4-6	230	융합(인문+예술)	178p
4-7	234	융합(과학+사회)	184p
4-8	239	융합(과학+예술)	188p
4-9	244	융합(인문+과학)	194p
4-10	248	융합(과학+사회)	198p
4-11	252	융합(인문+과학)	202p
4-12	257	융합(인문+과학)	210p





교과서에서 말하는 독서 지문 읽는 법



교과서에서 말하는 지문 읽는 법

step 1. 글을 고르는 방법

글을 읽을 때에는 좋은 글을 골라서 읽어야 한다. 좋지 않은 글을 읽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생각하는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글을 고르고, 옳은 방법으로 접해야 한다.

글을 고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독서의 목적에 맞는 글을 고르거나, 글의 가치를 고려해서 고르는 방법이다. 수능 국어에서는 이 두 방법이 각각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따라서 정보 습득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인 비문학 글에서는 독서의 목적을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

step 2.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글을 잘 읽는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글의 의미를 다양한 단계(단어, 문장, 문단, 글 전체)에서 생각하며,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무엇을 다뤘는지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다룰지 예상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의 글을 읽었다면, 이와 관련있는 다른 글을 추가로 접할 때 훨씬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특히,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을 동시에 접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세를 갖게 되어 효과가 극대화된다.

step 3. 글을 읽는 방법

1) 객관성과 주관성

글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룬 부분이 있으며, 주관적인 의견을 다룬 부분이 있다. 글의 각 부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하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는 아무 생각 없이 텍스트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글을 읽으며 객관적으로는 주제, 중심 내용, 소재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구조적으로는 전개 방법과 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관적으로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확인하거나, 즐거움, 깨달음 등을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2) 추론과 비판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것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순히 지금 내가 무엇을 읽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내용이 올지, 지금 이 논리가 적절한지 생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만약, 자신이 예상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왜 나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글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step 4. 수능 국어의 비문학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과서에 나온 방법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 방법이 충분하지도 않고, 교과서의 방법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좌측 3개의 step을 따라가며, 교과서에 나온 읽기 방법을 수능에서 활용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step 1에서는 좋은 글을 고르는 것을 다뤘다. 수능에서는 정해져있다. 바로 기출이다. 기출의 지문은 모두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리트, 미트, 피트 정도가 있을 것이다. 권위 있는 기관의 글은 그 권위에 걸맞게 좋은 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다음 step 2가 중요하다.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 수능 비문학 지문을 읽는 도중,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눈이 글을 읽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step 2에서 다뤘던 것처럼, 글의 의미를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하며, 이후 과정을 예상하며 읽어야 한다.

step 3에서는 글을 읽는 방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글 자체를 비판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 비문학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루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비판은 하지 않되, 추론하고,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문-문제 유기성이다. 지문의 어느 내용이 문제로 출제될지 예상하면서 읽어야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좋은 글을 꾸준히 접하고, 그런 글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며 글의 구조를 느끼고, 이후 이어질 내용을 예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갈고닦은 읽기 실력을 실제 수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수능의 목적이다.



2

실전 학습파트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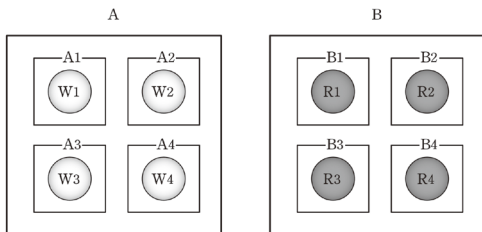


지문 5-1

수특독서 264p. 과학

칸막이로 이등분된 수조의 한쪽에는 찬물을, 다른 한쪽에는 더운물을 넣은 후 칸막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물이 섞여 미지근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찬물과 더운물이 각각 분리된 채로 유지되지 않으며, 왜 미지근한 물이 얼마 후에 찬물과 더운물로 다시 분리되지 않을까? 이러한 자연의 방향성은 ‘열과 물질의 출입이 차단된 계*, 즉 고립된 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열역학 제 2법칙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자연의 방향성을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여 접근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볼츠만이다.

볼츠만은 어떤 물리적 계의 엔트로피를 그 계가 처해 있는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에 상응하는 값으로 정의하여,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크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츠만은 계의 엔트로피가 커지는 것을 미시 상태의 수가 적은 거시 상태에서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로 옮겨 가는 것과 동일시했다. 그렇다면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어떻게 엔트로피와 연관되는지 더운물과 찬물이 섞이는 단순화된 모형을 통해 이해해 보자.



상자 A에는 4개의 칸 A1, A2, A3, A4가 있고 각 칸에 흰색 공 W1, W2, W3, W4가 하나씩 들어 있다. 상자 B에도 4개의 칸 B1, B2, B3, B4가 있고 각 칸에는 빨간색 공 R1, R2, R3, R4가 하나씩 들어 있다. 흰색 공의 내부 에너지는 E, 빨간색 공의 내부 에너지는 2E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처음에 A의 내부 에너지는 4E이고 B의 내부 에너지는 8E 일 것이고 A와 B를 합친 전체 계의 내부 에너지는 12E가 된다. 공들은 아주 짧은 단위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는데 8개의 칸 중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즉 다른 칸으로 옮기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칸으로든 들어갈 확률은 모두 같다. 모든 칸에 공은 하나씩 들어가야 하고 공은

A 또는 B 중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이 자리를 바꾸는 동안 각각의 공이 가진 내부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

만약 공들의 재배열 상태가 A에 흰색 공이 3개, 빨간색 공이 1개 들어가는 거시 상태이면 A의 내부 에너지는 $3 \times E + 1 \times 2E = 5E$ 이다. 그러면 전체 계의 내부 에너지는 12E이므로 B의 에너지는 7E가 될 것이다. 만약 A에 흰색 공이 2개, 빨간색 공이 2개 들어가는 거시 상태이면, A의 내부 에너지는 $2 \times E + 2 \times 2E = 6E$ 가 되고 이때 B의 내부 에너지도 6E가 된다. 전체 계의 다른 에너지 분포 상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를 생각해 보자. A가 4E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의 서로 다른 흰색 공이 자리를 바꾸어 만들 수 있는 배열 방식의 수 $4 \times 3 \times 2 \times 1 = 24$ 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고 과정으로 B가 8E의 상태에 있는 경우의 수도 24라고 말할 수 있다. A가 취할 수 있는 24가지와 B가 취할 수 있는 24가지를 곱한 것이 전체 계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가 균질해진 미지근한 물의 상태, 즉 A와 B의 내부 에너지가 같은 거시 상태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A와 B가 모두 6E의 내부 에너지를 갖는다. 각 상자가 6E의 내부 에너지를 가지려면 흰색 공 2개, 빨간색 공 2개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4개의 흰색 공 중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고, 4개의 빨간색 공 중 2개를 선택하는 방법도 6가지가 있다. 이렇게 택한 4개의 서로 구별되는 공을 A에 넣고 거기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24가지가 된다. 이제 남은 공 4개를 B에 넣는다. B에서 공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24가지이다. 그러므로 각 상자가 6E의 상태에 처할 전체 계의 미시 상태의 수는 $6 \times 6 \times 24 \times 24$ 가 된다. 다른 에너지를 갖는 거시 상태의 미시 상태의 수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가 5E, B가 7E인 경우는 $4 \times 4 \times 24 \times 24$ 이고, A가 8E, B가 4E인 경우는 24×24 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A와 B의 에너지 차가 가장 큰 4E + 8E 거시 상태(찬물 + 더운물)의 미시 상태의 수보다 A와 B의 에너지 차가 없는 6E + 6E 거시 상태(미지근한 물)의 미시 상태의 수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하여 공들이 계속 자리를 바꾸면 모든 공의 배열 중에서 미

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은 $6E + 6E$ 의 거시 상태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크고 이때의 엔트로피도 가장 크다. 실제 상황에서는 입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까지는 사고의 단순성을 위하여 입자의 수를 줄여서 고찰하였다. 실제 상황에서 액체나 기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경우에는 구성 입자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에너지가 큰 입자와 에너지가 작은 입자가 두 구획에 분리되어 따로 존

재하는 것에 비하여 모든 입자가 균질하게 섞여 있는 경우의 수는 훨씬 많아진다. 그러므로 열역학 제2 법칙에 따라 계가 최대의 엔트로피를 갖는 상태로 변해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과정이다.

*계: 물리학에서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고려하는 범위에 있는 대상.

보기

24시간 뒤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오를지 내릴지 10명의 전문가에게 묻는다고 하자. 10명의 전문가가 환율의 오름 여부를 맞힐 확률은 모두 같고 모두 '오른다' 또는 '내린다'로 답한다. 오른다고 답한 사람의 수에서 내린다고 답한 사람의 수를 뺀 값을 A라 하면 A의 값은 거시 상태를 나타낸다. 거시 상태 중에서 $A=0$ 일 때 미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고, $A=0$ 에서 멀수록 미시 상태의 수가 적다. 여기에서 볼츠만의 정의에 따라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오른다고 답한 사람과 내린다고 답한 사람 수의 차이가 클수록 예측이 더 명확하므로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미시상태의 수와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미시 상태에서의 경우의 수와 관련하여 가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엔트로피는 가능한 상태가 많을수록 커지며, 이를 물을 섞는 실험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열역학 제2 법칙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계'와 엔트로피 등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해야 한다.

주제

정리

코멘트

고등학교 화학과정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므로, 기존에 알던 내용을 갖고 이해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의 경험을 실제 수치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지문정리

- ▶ 주 제: 거시상태가 갖는 미시 상태의 수와 엔트로피의 관계
- ▶ 1문단: 찬물과 더운물의 섞임과 열역학 제2 법칙
- ▶ 2문단: 미시 상태의 수에 의한 엔트로피의 정의
- ▶ 3문단: 단순화된 모형의 설정
- ▶ 4문단: 찬물과 더운물이 분리된 상태의 미시 상태의 수
- ▶ 5문단: 미지근한 물의 미시 상태의 수
- ▶ 6문단: 미시 상태의 수와 열역학 제2 법칙

해제

이 글은 엔트로피를 확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엔트로피는 전체 계의 특정한 거시 상태가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찬물과 더운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현상을 단순화된 모형으로 열역학 제2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전체 계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거시 상태에 있을 때 계를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미시 상태의 수를 셀 수 있다. 이 모형을 이용하면 찬물과 더운물이 분리되어 있는 거시 상태가 갖는 미시 상태의 수보다 찬물과 더운물이 섞여 균질화된 거시 상태가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열역학 제2 법칙에서 말하듯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의 상태가 변해 가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특에서는 이것을 물었다

3문단은 아래 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어떤 가정을 해야 하는가?
칸막이로 이등분된 수조의 한쪽에는 찬물을, 다른 한쪽에는 더운물을 넣은 후 칸막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 문장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찬물과 더운물이 각각 분리된 채로 유지되지 않으며, 왜 미지근한 물이 얼마 후에 찬물과 더운물로 다시 분리되지 않을까?

<보기>의 '거시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토픽 한줄정리

- ▶ 엔트로피: 무질서도이다.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

추가 읽기

엔트로피(S)의 정의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정의(통계학적 접근)

$$S = k_B \ln \Omega, \text{ 오메가는 가능한 미시 상태의 수이다.}$$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정의(열역학적 접근)

$$\Delta S = \frac{\Delta Q}{T}, \text{ Q는 열량이다.}$$

연계 토픽

- ▶ 엔트로피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자유 에너지가 있다. 자유에너지에는 깁스 자유에너지와 헬름홀츠 자유에너지가 있다. 깁스 자유 에너지는 화학에서 주로 쓰이며, 일정 온도와 압력을 갖는 계에서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열역학적 에너지를 뜻한다. 헬름홀츠 자유 에너지는 주로 물리학에서 쓰이며, 일정 온도를 갖는 계에서 일로 변할 수 있는 열역학적 에너지이다. 각 경우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A = U - TS$, A는 헬름홀츠 자유 에너지, U는 내부 에너지, T는 온도, S는 엔트로피이다.
- ▶ $G = H - TS$, G는 깁스 자유 에너지, H는 엔탈피, T는 온도, S는 엔트로피이다.
- ▶ 본문은 과학에서의 엔트로피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다루었던 엔트로피는 정보 엔트로피이다. 정보 엔트로피(새넨 엔트로피라고도 함)는 각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의 평균이다. 만약 확률이 낮다면, 어느 정보가 확실하게 되고, 이 경우는 엔트로피가 작다고 한다. 즉, 무질서도를 뜻하는 과학에서의 엔트로피와는 달리 정보 엔트로피는 어떤 정보가 모호한 정도로 볼 수 있다. 정보 엔트로피가 기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일부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 ▶ 다른 엔트로피는 정보 엔트로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역학적 엔트로피와 블랙홀 엔트로피도 있다. 양자역학적 엔트로피(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양자 공간에서의 엔트로피를 뜻하는데, 기존 엔트로피 개념과 같이 최대 혼합 상태에서 최대가 된다. 블랙홀 엔트로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블랙홀은 일정한 엔트로피를 갖고, 사건의 지평선 넓이에 비례한다고 한다. 파생된 엔트로피 개념은 대부분 기존 엔트로피를 일부 참고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엔트로피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 더 나아가서,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다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출 가능한 에너지'를 정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론이 예술계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추가 자료 1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840년대에 줄(Joule)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calorie)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 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라고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2017. 09월

추가 자료 2

최소한 세 가지 종류의 시간 화살이 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지각하는 방향,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지하는 시간은 두 번째 시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일직선의 회귀할 수 없는 시간을 지각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비가역적인 시간의 흐름이며, 무질서도를 뜻하는 엔트로피는 이러한 시간에서 발생한다. 엔트로피는 그 특성상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항상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최저점으로 갖게 된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통상 연대기적인 시간 개념이지만, 항상 지금 이 순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순간은 다음 순간 대비 언제나 엔트로피가 낮은 단계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순차적인 시간과 순간의 개념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엔트로피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비가역적인 시간 속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이해한 것은 19세기의 일이며, 이러한 현상을 예술에 접목시킨 것 또한 20세기에 이르러서다. 따라서 예술과 엔트로피 사이의 구체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대예술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시간의 비가역성과 무질서도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예술에 나타난 엔트로피적 현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중략)

이런 비가역성의 무질서 경향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엔트로피다. 예를 들면,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작품 사이에는 엔트로피의 차이가 발견된다. 피카소의 <우는 여인(The Weeping Woman)>(1937) (도판 6)은 오늘날 빈번히 오마주의 대상이 되는 <게르니카(Guernica)>의 습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여인의 두 눈을 보자. 인물을 똑같이 재현해야 하는 전통적인 회화 장르였다면, 피카소의 우는 여인의 두 눈은 잘못 그려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측을 향하는 얼굴에서 정면성을 띠는 왼쪽 눈은 재현적인 관점에서 어색하게 보인다. 그러나 한 화면에 다시점을 투사한 큐비즘 양식은 여인의 눈을 기술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는 여인>의 눈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각하는 것과 다른 각도의 눈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단일한 고정적 시점이 유지해온 재현적 질서를 와해시킨다. 무질서도가 생긴 것이다.

잭슨 폴록은 <no.5>(1945)에서 공간에 수직적으로 세우고 사용하던 이젤 대신, 바닥에 캔버스를 수평으로 간 채 무의식적인 액션 행위로 추상표현주의를 시도한다. 그의 액션은 이젤과 수평 관계로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바닥을 향하는 몸의 수직적 관계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신체적 표현을 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감의 자유낙하에 의해 이 작품은 형태도 알 수 없고, 규칙도 알 수 없는, 무질서 그 자체로 탄생한다.

그러나 피카소와 잭슨 폴록의 작품에는 엔트로피의 차이가 뚜렷이 보인다. 전자는 마치 정돈된 책상 위의 물건들을 재배치시키는 것과 같다. 깔끔히 정돈된 책상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이며, 그 위의 물건들을 재배치시킨다고 해서 무질서도가 급격히 증가하진 않는다. 피카소의 <우는 여인>의 두 눈은 원래 얼굴의 일부였고, 그것이 위치를 조금 틀었다고 해서 엄청난 무질서를 야기하진 않는다. 반면, 극도로 어질러진 책상 위를 상상해보자. 수북하게 쌓인 책과 마구잡이로 뒤섞인 A4용지,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에 형형색색의 펜들이 한 가득이다. 우선 책 두 권과 펜 3개의 위치를 바꾸어 보길 바란다. 그러나 원래 고-엔트로피였던 책상

은 몇 개 정리한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진 않는다. 거의 전체적인 무질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잭슨 폴록의 작품도 이와 같다. 그가 액션 페인팅에서 행한 퍼포먼스는 처음부터 무질서를 동반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가 후에 화폭의 몇 군데를 의도적으로 정리한다 해도 전체적인 무질서도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피카소나 폴록의 작품 모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전자는 저-엔트로피의 상태를, 후자는 고-엔트로피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작가 모두 작품의 새로운 제작을 위해 현재의 그림을 모두 지워버리고 초기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던 캔버스 상태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그려진 화면을 단색으로 채운다 해도 더 많은 엔트로피를 생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만약 단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캔버스 위의 결과물은 한번 그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그려졌고 여기에 화가의 작업행위까지 포함된다면, 가중된 에너지 사용에 의한 일련의 작업과정은 궁극적으로 엔트로피의 전체 값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을 뿐이다.

엔트로피를 통해 세계의 향방을 예측한 제레미 리프킨은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고갈되기 때문에 역사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동일한 방식의 반복된 에너지 소비는 생산성이 바닥나는 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는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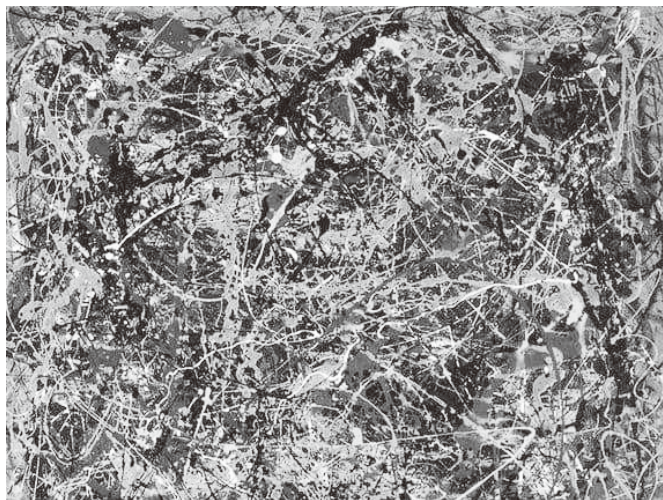
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양식의 기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가 창출되는 것이다.” 20세기를 관통한 현대예술은 재현의 기존 예술을 비판하며 비재현의 추상성과 단순성으로 전향했고, 또다시 포스트모더니즘의 복잡성을 주요 기제로 사용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리프킨의 견해처럼, 에너지를 급속도로 고갈시키는 과정을 거친 현대예술은 이제 다원화의 포화상태에 이르는 전환점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말하자면, 현대예술은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시간 대비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 잉여의 엔트로피를 낳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한계 상황의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엔트로피의 가치적 문제는 현대예술의 특이성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변별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엔트로피의 물리적 특성이 현대예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 또한 간과되지 말아야한다. 현대예술은 인간의 정신적 기능은 물론 자연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업의 프로세스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 사용과 그 잔재를 내포한 엔트로피의 개념 안에서 포괄적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예술의 비평용어로 엔트로피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선행문헌을 통해 현대예술에서 다루어지는 엔트로피의 복합적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김정현, “현대예술에서 엔트로피의 문제 고찰” (2015)



피카소의 우는 여인



잭슨 폴록의 no.5

주제

정리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도사로 알려진 리오타르의 철학은 '수직적 통합'이 아닌 '갈등의 옹호'로 집약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모더니즘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원리 혹은 이야기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인 데 반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작은 이야기들이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갈등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어떤 담론이 절대적 지위를 지니고 그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다른 담론들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수직적 통합은 폭력적인 것이며, 이런 통합이란 실은 근대가 낳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리오타르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리오타르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숭고'라는 개념이다. 리오타르는 칸트의 미학 이론에 등장하는 숭고의 개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확장하여 자기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삼았다. 원래 숭고는 이미 3세기 로마의 롱기누스에 의해 수사학적 차원에서 거론되었고, 18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버크에 의해 미학의 핵심 범주로 다루어졌다. 버크의 숭고는 아름다움과 구별되는 '즐거운 공포', 즉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를 볼 때의 느낌 처럼 위대함 혹은 거대함과 관련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후 칸트는 숭고를 대상의 크기에서 환기되는 수학적 숭고와, 대상의 위력에서 환기되는 역학적 숭고로 구분하면서 숭고에 관한 버크의 논의를 체계화하였다. 그는 우리가 엄청난 크기의 대상 앞에서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 도저히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왜소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결코 재현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위대함이 자연에 있다는 종교적 자각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숙한 인간이라면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이성에 의해 무력감을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 고양을 맛보게 된다고 하였다.

숭고에 대해 리오타르는 칸트의 숭고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다. 리오타르는 숭고미가 근본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 즉 숭고의 메커니즘이 지닌 역설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숭고미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재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숭고미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어, 재현할 수 없는 모든 대상은 근본적으로 숭고의 대상이 된다. 자연도 인간도 또 눈앞의 현실 세계 전체도 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리오타르에게서 숭고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현실 자체가 숭고한 것이며 어떠한 담론에 의해서도 현실 세계는 재현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거대 담론은 세계를 재현하고 있다고 자처하지만 실은 숭고한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므로, 숭고의 체험이란 이런 허구적 거대 담론의 위선을 드러내고 거짓된 통합을 해체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리오타르가 볼 때 숭고란 이렇게 거대 담론의 제왕적 지위를 몰수하고 수많은 소소한 담론을 갈등과 분쟁의 상태에 빠뜨리는 기능을 한다.

한편 리오타르는 숭고의 개념을 현대 미술과 연관 지어 논의하였는데, 이는 그가 언어와의 대비 속에서 이미지의 속성을 각별히 중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재현할 수 없는 숭고의 대상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어떤 특성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고 나머지 모든 요소는 배제하는 것인데, 숭고함이란 그런 규정마저 넘어서기 때문에 숭고함을 언어로 규정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일이 되고 만다. 그와 달리 이미지는 숭고를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는 단일한 의미만을 전달하거나 어느 한 가지 특성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특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해석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낳는다. 이렇게 볼 때 이미지야말로 숭고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형상을 억압하고 담론을 숭상해 온 지금까지의 역사가 거짓된 진리를 숭배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리오타르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술이 숭고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 첫째는 낭만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숭고의 간접적 묘사'이다. 이는 화폭을 자연으로 가득 채우고 인간을 왜소하고 미약하게 그림으로써 대조를 통해 자연의 숭고함을 부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숭고의 부정적 묘사'로, 아예 형상을 묘사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중 리오타르는 두 번째 방식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현대 예술에서 대상성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리오타르가 특히 중요하게 거론한 화가는 미국의 현대 추상주의 작가 바넷 뉴먼이다. 뉴먼은 버크와 칸트의 숭고 개념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회화에 적용하려 시도했는데, 이를테면 온통 빨간색으로 뒤덮인 거대한 화폭 어딘가에 어떠한 사물도 재현하지 않는 형상에 해당하는 검은 수직선 하나를 그리는 추상화 같은 것이다. 이런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그 어떠한 재현적

인 체험도 할 수 없다. 뉴먼은 자신의 작품이 한갓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 그의 작품은 몬드리안과 같은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표현하려는 것은 미적 구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즉 '존재의 사건성'이다. 그래서 뉴먼은 자신이 잭슨 폴록 같은 액션 페인터에 가깝다고 보았다. 액션 페인팅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성과 현장성이기 때문이다.

뉴먼의 이런 생각은 예술의 본질이 '존재자의 재현'이 아니라 '존재의 사건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리오타르의 관

점과 일치한다. 지성적 사유는 존재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사건으로서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예술 역시 그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도무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관람자가 느끼는 순간 소환되는 특별한 충격을 통해 존재란 애초에 표현될 수 없다는 점을 증언하는 것이다. 뉴먼의 작품처럼 진정한 예술은 우리에게 낯익은 세계의 재현을 파괴함으로써 그 뒤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낯선 세계를 드러낸다. 리오타르는 이와 같은 인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승고의 본질, 즉 현대 예술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보기 1

현실의 정치는 여러 정치인 혹은 정치 세력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거대 담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회든 간에 큰 선거가 치러질 때면 유력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제시하는 특정 담론을 중심으로 삼아, 다양한 당파적 이해나 이념적 지향으로 인해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그치고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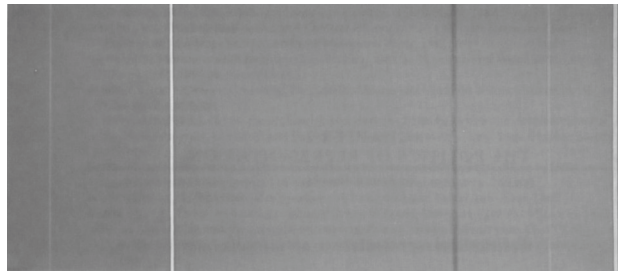
보기 2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승」은 광활한 하늘과 바다를 보고 서 있는, 보일 듯 말 듯한 크기의 수도승을 그린 그림이다.

바넷 뉴먼의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은 242×542cm짜리 거대한 작품이다. 뉴먼은 온통 한 가지 색으로 칠해진 바탕에 몇 개의 선이 그어진 화면에 불과한 이 작품을 되도록 가까이에서 감상할 것을 권하였다.



해변의 수도승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

승고의 철학적, 예술적 의미와 가치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 개념과 승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승고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거치며, 칸트와 리오타르의 승고의 의미를 비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오타르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뉴먼의 의견 역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승고의 개념이 현대 미술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주제

정리

코멘트

아주 오랜 시간동안 유지해왔던 '숭고'의 개념을 풀어내었고, 이를 현대 미술 사조와 연결지어 설명한 글이므로, 매우 매력적인 소재이다.

숭고에 대해 논의할 때, 롱기누스-버크-칸트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다는 점 역시 현재 학계에서도 '숭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엿볼 수 있는 방법이다.

지문정리

- ▶ 주 제: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숭고의 가치
- ▶ 1문단: 모더니즘에 대한 리오타르의 비판
- ▶ 2문단: 롱기누스, 버크에 이은 칸트의 숭고론
- ▶ 3문단: 리오타르가 중시하는, 역설적 성격으로 인한 숭고의 기능과 중요성
- ▶ 4문단: 이미지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여 숭고의 개념을 현대 미술과 연관지어 논의한 리오타르
- ▶ 5문단: 미술이 숭고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
- ▶ 6문단: 숭고의 개념을 연구하여 존재의 사건성을 회화로 표현하려 했던 바넷 뉴먼
- ▶ 7문단: 숭고를 통해 인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 예술의 본질

해제

이 글은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숭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 담론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수직적 통합을 중시하는 모더니즘과 달리,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러 담론 간의 갈등을 옹호한다. 이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 할 때 발생하는 숭고미가 거대 담론의 제약적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리오타르는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현대 미술과 연관 지어 숭고를 논의하였는데, 숭고의 부정적 묘사와 관련된 중요 화가로 바넷 뉴먼을 들 수 있다. 버크와 칸트의 숭고 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미술로 구현하고자 한 뉴먼의 작품은 예술의 본질이 존재의 사건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리오타르의 관점에 부합한다.

수특에서는 이것을 물었다

'리오타르'의 관점에서 <보기1>을 이해하기

'본문'을 읽고 <보기2>에 대해 보인 반응

토픽 한줄정리

- ▶ **숭고**: 위대함, 장엄함 등의 감정으로, 압도적인 대상을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1924~1998)**: 프랑스의 철학자로, 인식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 ▶ **모더니즘**: 기존의 예술을 부정하고, 현대 문명을 비판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해석하는 예술 사조이다.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예술 사조이다.
- ▶ **포스트모더니즘**: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예술 사조로,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모더니즘은 이성으로 대표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비유할 수 있다.

추가 읽기

숭고에 관한 의견

-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롱기누스**

플라톤은 숭고에 대하여 이데아론과 결합한 해석을 하였다. '숭고'를 적절히 사용하면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 진리에 도달해 이데아에 더 가까워진다고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숭고를 느끼게 되면, 카타르시스를 같이 느낀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롱기누스는 수사학적 차원에서 숭고를 거론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 ▶ **버크**

숭고의 정체가 공포감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미학의 핵심 범주로 삼았다.

- ▶ **칸트**

칸트는 버크의 논의를 체계화하였다. 숭고를 대상의 크기와 관련된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로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판단력비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 **리오타르**

숭고의 메커니즘이 지닌 역설적 성격에 주목한 학자이다. 숭고의 기능은 소소한 담론들의 갈등과 분쟁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숭고의 기능은 거대 담론에 의한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칸트와 <판단력 비판>

칸트가 미학에 대해 연구한 기록을 담은 저서이다. 칸트의 3대 비판서 중 하나이다. 칸트는 '미적 대상'을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은 취미판단의 4계기를 경험한다고 제시하였다. 무관심성, 주관적 보편성, 목적없는 합목적성, 주관적 필연성으로 대표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며, 아름다움은 '미'와 '숭고'로 나누어진다. 칸트는 그의 저서에 '숭고'에 대해 짧게 설명하였다.

연계 토픽

- ▶ 현재 우리는 회화나 조각과 같은 예술품을 일상에서 접하기 힘들다. 본문의 숭고를 영화와 관련지을 수 있다.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숭고를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액션 영화 등에서 역학적 숭고를 느낄 수 있으며, 대상의 크기 등에 의해 수학적 숭고를 같이 느낄 수 있다. 또한, 영화 외적으로도 화질이 좋거나, 색감이 뛰어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감정 역시 숭고로 볼 수 있다. 단,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웅장하다'와 같은 감정은 숭고가 맞긴 하지만, 영화에 대한 숭고가 아니라, '화면의 기술력'에 대한 숭고이다.
- ▶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주 중요한 토픽인 것 같다. 이에 대한 블로그 등 비전문가의 글은 전문가의 글에 비해 비교적 적지만, 관련 논문은 수십 편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숭고'를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한 논문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최근 연구 트렌드를 대표하는 지문이므로,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도록 하자. 또한,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에 관한 지문이라는 것도 본 지문을 강조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교재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

추가 자료 1

숭고(Sublime)의 개념은 ‘영혼의 고양’, ‘인간이 지닌 이성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는 한계’, ‘공포를 극복한 삶의 의지와 기쁨(delight)’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술에서 ‘숭고’는 그동안 미가 객관적인 수치, 비례, 형식적 성질에 관련한 대상의 성질에 있었다면 미가 아닌 다양한 예술적 가치 중 하나로 등장한다. 숭고는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예술가, 천재, 상상력, 감정 등의 논의와 함께 예술과 본격적으로 고찰되기 시작한다.

‘숭고’ 개념이 미술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에서이다. 낭만주의 미술은 개인의 주관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감정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으로 그 동안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에 가리워져 있던 내면의 삶의 표현들을 드러냈다. 특히 미술에서 장르는 ‘회화’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당대 현실세계보다 풍경화를 통해서 무한한 것의 열망과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대비를 나타낸 주제로 구현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과학과 다른 예술 고유의 영역으로서 인간의 초경험적인 것을 주로 작품으로 나타내었던 카스파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가 있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은 감히 유한한 존재자로서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였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은 예술가가 상상력과 감정을 매개로 자유로운 감성을 조형적 요소-선, 형태, 구도-로 나타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낭만주의 미술은 그 동안 신고전주의에서 교화적이고 질서정연하며 규범적인 형식과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낭만주의 미술이 전통적인 모방론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관념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기반으로 숭고의 미학을 주장하였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던을 거대서사(Grand narrative)의 불신으로 정의한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성의 확신으로 일관했던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몽주의 이래로 형이상학적 가정을 품었던 진리에 관하여 반대했다. 그는 당대 2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참혹한 아우슈비츠를 목도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맹목적인 이성의 확신에 대하여 불신을 주장한다. 이러한 리오타르의 철학은 그리스어로 반대를 의미하는 파라(para)라는 말과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logos)의 두 낱말로 구성되어 있는 불일치(paralogy)의 개념에 근간한다. 그러나 그에게 불일치는 단순히 반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던 사회의 지식에 기반을 두는 사회의 정당화에 관한 논리를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 리오타르는 후기 산업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류 및 문명의 진보 가운데서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인간성(humanity)이라 보았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당대에 시대성의 위협을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통로를 예술로 바라보며 위의 문제의식으로 숭고의 미학을 논의한다.

리오타르는 칸트를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 동기를 발견하고 반성적 판단력에 주목한다.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지지 않을 때 특수자들을 찾아가는 특징을 지닌다. 리오타르는 반성적 판단력에서 나타나는 미와 숭고 중, 비결정성(indeterminacy)의 특징을 지니는 숭고를 그의 예술철학 전반의 토대로 삼고 포스트모던 예술로 논의한다.

리오타르는 데카르트, 근대 철학 이후 이성 인식론을 토대로 하는 리얼리즘을 비판한다. 리오타르는 현실을 고착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합일화 하는 것을 비판하고 아방가르드 예술이 현실과 사유의 불가공약성(incommensurability)을 증언

하는 숭고미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리오타르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중요하게 보고 모더니즘 미술을 시작으로 ‘표현’을 의문시하는 현대미술에 대한 숭고 미학의 분석을 전개한다.

리오타르는 “Post-”가 주는 의미를 모던이 내재하는 혁신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숭고미학으로 논의한다. 먼저 모던 숭고는 인간 주체의 인식 능력의 불완전함을 표현하여 기존의 예술 형식은 파기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용적으로 담아낸다. 모던 숭고의 서정은 향수적(nostalgia)이다. 반면 포스트모던 숭고는 표현할 수 없는 것(unpresentable)을 표현 그 자체(itself)로 드러내므로서, 혁신적(notational)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던 숭고가 표현에 대한 실험을 의미하며 존재와 환희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숭고의 감정을 전해준다는 것이다. 리오타르에게 숭고는 관념을 뜻하는 우주, 인간성, 신, 영혼, 절대적인 크기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리오타르는 ‘지금 일어남(event, occurrence, Ereignis)’이라는 시간성을 토대로 하는 사건성, 물입에 대하여 말한다. 예술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 불가능한 무아지경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더니즘을 시작으로 포스트모던 예술을 숭고로 본 리오타르의 논의를 통하여 다양해진 현대미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숭고의 경험을 통하여 존재의 환희를 경험한다는 그의 논의는 예술과 미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목하게 만든다.

출처 박보람, “현대미술에 나타난 숭고에 관한 연구”(2016)
참고 김신중, “칸트의 숭고 감정에 관한 연구”(2011)

추가 자료 2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자신의 저서인 『Lessons on the Analytic of the Sublime』에서 칸트 미학을 독특한 관점으로 재해석해냈다. 리오타르의 미학은 칸트로부터 출발하지만 칸트 미학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는 칸트의 철학이 이론과 실천, 자연과 자유의 조화 가능성을 위해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리오타르는 사유의 기초를 구상력과 이성 사이의 충돌과 분쟁에 중점을 두고자 했기 때문이다.

리오타르는 칸트의 미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칸트가 형이상학에 머물렀다고 비판한다. 리오타르에 의하면 칸트의 미적 판단은 “객관적 실재 혹은 대상에 관한 주관적 실험(subjective laboratory)”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칸트의 미적 판단은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개념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미적 판단이 가지고 있는 “꽤나 불쾌의 상태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칸트의 미적 판단개념은 “감각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인지적 합목적성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주체 자신에 대한 정보만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리오타르는 칸트의 미적 판단에 관한 개념이 “더 이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하며, 칸트 미학 전체가 주관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리오타르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미적 판단이 지니고 있는 주관성의 경향은 숭고의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숭고의 판단이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반성적 판단이며, 그 자체 규정적 판단의 객관성에 대한 주장이 없음을 의미한다. 숭고의 판단은 개념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이다.

숭고 감정은 이성이념이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의식함으로써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객관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주관에 관계한다. 리오타르는 자연에서 느끼는 숭고감이 사실은 인간 내부의식에 근거한 도덕적 우월함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 대상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이것은 리오타르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의 전통’(tradition of the subject)에서 오는 주체의 형이상학에 불과하다.

리오타르가 보기에 총체성은 경험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자의적 부과의 결과일 뿐이었다. 리오타르는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의 언어철학의 통찰을 이어가면서 인간의 의식이 이전에 존재하는 담론(discourse)에 집중했다. 담론은 일차적으

로는 언어적 장르인데 이것은 이질적인 어절들(phrases)을 묶기 위해 규칙들을 적용한다. 리오타르에 의하면 이 규칙들은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주체를 담론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는 리오타르의 관점에서는 칸트의 총체적인 철학의 지향성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리오타르는 칸트가 제시한 숭고의 개념이 오히려 칸트가 본래 『판단력 비판』에서 기획했던 자연과 자유의 화해를 모색하는 총체성의 철학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칸트 역시 숭고의 분석에 대한 결과들을 명쾌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숭고가 가진 ‘폭력성’은 섬광과도 같기 때문이다. 숭고는 그 자체로 사유를 중단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숭고가 가진 미 판단이 개념적인 판단이 개념할 수 없는 무규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홍광수, “칸트와 리오타르의 숭고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2019)

주제

정리

법은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경우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 그 대표적 예로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법상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시효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발주한 공사를 을이 완료한 상황에서 을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을이 갑에게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시효 제도에 따라 을은 사법상 권리가 소멸하여 갑에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을의 관점에서 가시효 제도는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법의 역할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은 그러한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단지 사실 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와 법질서를 부정하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거래 안전 및 법적 안정성은 위협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사실 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고착화되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철학자의 말이 있듯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행사 하지 않으면 법이 그 권리 행사를 조력할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증거 보전의 곤란'도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들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진정한 권리 관계에 관한 증거가 흩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현재의 사실 관계 외에 진정한 권리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단지 증

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증거 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효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시효 제도로 '취득 시효(取得時效)'와 '소멸 시효(消滅時效)'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 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 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민법은 물권*인 소유권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진정한 권리자인 양 점유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공식 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취득 시효 규정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민법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인 '취득 시효 완성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 법적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물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면 취득 시효 완성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시효 완성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또 다른 시효 제도인 '소멸 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완성에 의해 생기는 이익인 '시효 이익'을 받는 자에게 권리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지배적 견해는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전자의 경우,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 중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관계: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사실상의 관계.

*권리관계: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법질서: 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질서.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채권: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기

A는 1993년부터 ○○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는 ○○ 토지가 자신의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떳떳하게 200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20년간 나무를 심어 길렀고, 취득 시효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한편 B가 20년간 나무를 심어 기르는 사실을 A가 알고 있었음에도 A는 ○○ 토지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민법의 시효 제도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에 의해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일으키는 제도인 시효제도에 대한 글이다.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시효 제도를 '취득 시효'와 '소멸 시효'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존재 이유로 '시효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독해하도록 하자.

주제

정리

코멘트

여러 논란이 있는 '시효 제도'에 대한 글이다. 수능과는 별개로, 상식을 위해서라도 읽어두면 좋을 것이다.

지문정리

- ▶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 제도
- ▶ 1문단: 시효 제도의 소개
- ▶ 2문단: 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1 - 법적 안정성
- ▶ 3문단: 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2 - 증거 보전의 곤란
- ▶ 4문단: 우리 민법의 시효 제도 1 - 취득 시효
- ▶ 5문단: 우리 민법의 시효 제도 2 - 소멸 시효

해제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시효 제도'가 있다.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진정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고착화된다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 보전의 곤란'도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들 수 있다.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증거 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시효 제도로 '취득 시효(取得時效)'와 '소멸 시효(消滅時效)'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 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 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한편 '소멸 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수특에서는 이것을 물었다

시효 제도에 대한 평가로는 아래 문장이 있다. 아래 문장이 타당한 평가인 이유는 무엇인가?
시효 제도는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법의 역할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볼 여지도 있다

<보기>의 상황에 시효 제도를 적용시켜보기

토픽 한줄정리

- ▶ 시효 제도: 시간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제도
- ▶ 취득 시효: 권리자가 아니어도, 그 행세를 오랫동안 해 왔으면 법적으로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 ▶ 소멸 시효: 권리자였던 사람이 그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를 잃는 것이다.

추가 읽기

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

- ▶ 법적 안정성
어느 사실관계가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인정되어진다면, 사회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만약, 어느 순간 그 사실관계가 부정된다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 ▶ 증거 보전의 곤란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이해관계가 굳어지게 되는데,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민법의 시효 제도

- ▶ 취득 시효
어떤 사람이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 ▶ 소멸 시효
취득 시효의 반대이다.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벗어났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형법의 시효 제도

- ▶ 형의 시효
확정 판결 후, 형벌권이 일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다. 확정판결 후, 집행만이 면제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전과는 그대로 남는 것이다.
- ▶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랜 시간동안 기소되지 않거나, 잡히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계 토픽

- ▶ 공소 시효 제도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거 보전 등의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는 하지만, 윤리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소 시효 제도를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 ▶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DNA감식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공소시효를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 ▶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복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현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 과거사에 자원이 집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자료 1

시효란 어떤 사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의 시효제도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형법상의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의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소액의 금액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10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입니다. 이를테면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의사의 진료, 약사의 조제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나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의 취득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권리행사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제246조 제1항에서는 1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동산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상의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첫째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실상태를 부인함으로써 생길 사회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법적 안정성의 추구), 둘째 어떤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다보면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을 것으로 보여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며(입증곤란의 구제),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형법상의 형의 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이 일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효의 완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벌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에는 집행만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의 경우에는 30년, 무기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에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의 집행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의 공소시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거나 잡히지 않은 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 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점에서 확정 판결 이후의 형벌권을 소멸하게 하는 형의 시효와 구분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멸시효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민법상의 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후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다른 사실상태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인 반면, 형법상의 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없었거나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이 없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형벌권을 소멸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법 교육센터

추가 자료 2

오늘날 소멸시효제도의 가장 강력한 존재근거는 법적 안정성이다. 소멸시효제도의 맥락 속에서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유동적인 법률상태의 ‘매듭짓기’이다.

우선 이는 의무자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위와 같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는 의무자의 후속적인 의사결정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이 존재하는 한, 또한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 분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제반 의사결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의무자는 관련된 서류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한 예산을 계속 책정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일 술하게 영위되는 기업 활동 속에서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소멸시효제도가 없다면 수십 년, 심지어는 수백 년 전의 기업 활동에 대한 책임이 추궁될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권리자가 언제 권리를 행사하는가는 외부적 요소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의 지속 기간이 좌우된다. 만약 의무자가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는데 그 신뢰에 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의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불안한 상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매듭지어주는 것은 의무자의 위와 같은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사회적 관점이다. 위에서 의무자의 고충을 이야기하였지만, 많은 경우 의무자는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안정한 법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자-의무자의 구도 안에서만 소멸시효제도를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 소멸시효제도는 사회적 관점을 끌어올 때 비로소 온전한 설득력을 가진다. 불안정한 법률 상태 또는 분쟁을 일정한 시기 내에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활동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거래의 촉진이 저해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권리 행사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거래나 활동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가 더 큰 효용을 부여하는 재화나 용역의 교환을 통하여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거래의 본질이라면, 이러한 거래촉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분쟁이 오래될수록 사법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오래된 증거와 진술, 그리고 이에 관하여 엇갈리는 쌍방의 공방 속에서 사법비용은 증가하고 진실발견의 가능성은 감소한다. 판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리자로 하여금 조속하게 법질서에 호소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인센티브

(incentive)를 제공하여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매듭 짓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점이 개입하면, 단지 “돈을 벌리고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갚지 않는” 개인적인 구도를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시효제도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매듭짓기 담론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일단 발생한 권리는 언제까지라도 그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권리의 보호 범위와 보호 정도 및 보호 기간은 각 권리의 특성과 그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도산법상 채무자가 대가 없이 면책되는 것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일정한 기간만 보호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권리의 보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소멸시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권리의 보호 필요성은 점점 약화되고, 이에 비례하여 권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도 약화된다. 이것은 일반인의 법 관념과도 일치한다. 소멸시효제도는 이처럼 권리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권영준(2009, 6)

주제

정리